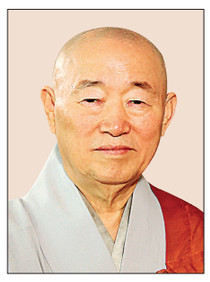
항상 변화하는 언론이 되길

BTN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대행 선사의 원력으로 창간한 이래 현재까지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잡아함경〉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들추려는 문제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문제 지적의 시기가 적절한지 살피며, 지적된 사항이 상대방과 제3자에게 모두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드럽고 조용하게 상대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을 유지하며 화를 내지 않고 지적해야 한다고 설하셨습니다. 이는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한 모든 언론이 한 번쯤은 되새겨봐야 할 경구라 하겠습니다.

서른 살 청년이 된 현대불교신문은 다시 한번 언론 본연의 자세인 '정론(正論)'과 불자로서의 '신심(信心)'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 방법은 대행 스님이 제시한 창간 사시인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현대불교신문은 정론지이자 포교신행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며, 항상 진보하고 변화하는 언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불법홍포·불교외호 역할해야

BBS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창간 이후 30년 동안 한국불교 포교·신행 전문지로 그 역할을 다 해온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1990년대는 불교계 언론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시기였습니다. 다양한 불교계 언론들이 자신만의 색채를 갖고 목소리를 내던 시기에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은 새롭고 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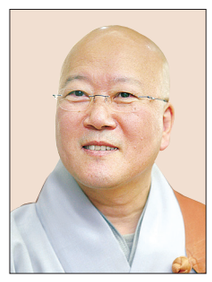
불교서점 '여시아문', 불교계 최초의 포털 사이트 '부다피아'와 불교계 최초 인터넷 뉴스 사이트 '붓다뉴스'를 구축해 교계 언론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작금의 미디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의 범람은 정보의 빠른 접근은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혐오표현이나 가짜뉴스들은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언론의 본래 자리인 '정론(正論)'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세상의 목탁'으로서 불법홍포와 불교외호의 역할을 온전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불교계 언론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항상 진일보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한국불교 등불 되길

불교신문 사장 수불 스님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발원하고 출발한 현대불교신문이 어느덧 30년의 세월을 지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불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자들의 신행을 이끌며,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중요한 불사(佛事)입니다. '전법(傳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대의 언어로 불교를 전하고 생활 속에서 불법(佛法)을 실천하도록 노력해 온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간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불교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맞서 불교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 속에서 불교적 관점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등 새로운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국불교의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불자들의 신행을 이끌고, 비불자들에게는 불교의 지혜를 전하는 소중한 매체로 역할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현불과 함께 아름답게 정진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현대불교신문 창간 30돌을 축하드립니다. 30년간 현대불교신문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한마음선원 이사장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년은 개혁종단의 30년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좋은 날 힘든 날, 많은 부침이 있었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많은 분들의 정성이 오늘의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30년의 시간 동안 우리사회는 급속한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언론매체의 패러다임이 일방적 전달기능에서 실시간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개인독자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많아져 생생한 보도를 만드는 언론인들의 고충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끝없이 불법홍포의 방식을 고민하고, 불교문화 창달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불교리더스포럼 회원 모두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참다운 불교지도자그룹으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불교리더스포럼은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아름다운 인연으로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대사회 문제에 해결책 제시

이재형 법보신문 대표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간 현대불교신문은 불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불교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지닌 가치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대중들에게 꾸준히 전해온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신자들에게는 교리와 수행을 깊이 있게 전달하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불교가 종교적 의미를 넘어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전달해 온 현대불교신문은 불교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지혜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100년 후에도 현대불교신문이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불교의 지혜를 널리 전파하며, 한국불교의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현대불교신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0년간 불교 가르침 몸소 실천

김보배 한국불교기자협회장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4년 창간 후 창간 3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정론직필의 마음으로 한 호, 한 호 발간에 최선을 다해오신 임직원과 기자 선후배 여러분들의 노고에 한국불교기자협회 소속 회원사와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30년간 불법을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며, 세계에 한국불교를 전하자는 목표 아래 불교문화와 언론의 저변을 넓히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하고, 다양한 기획·연재를 통해 불교 전문 매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언론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이 변해가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불교를 외호하고 불교가 발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앞으로도 독자들과 호흡하며 불교와 신행, 교양과 문화를 나누는 언론이 되길 서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이 걸어가는 길에 한국불교기자협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불법 전파에 누구보다 앞장

장정화 (사)KYBA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30년간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 전하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으며, 불자와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이지만 신문사는 불교계와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전파하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은 단순히 불교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깊이 있는 사상적 고찰과 사회적 성찰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새롭게 조명하고, 젊은 세대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의 역할을 넘어서, 불교 신행과 사회적 가치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이 불교계의 선도적인 매체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대중과 불자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소통의 창구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현대불교신문의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을 기대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부처님 지혜로 세상 밝혀주길

주현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62년차 중앙회장



높고 푸르른 하늘 만큼 우리의 마음도 평안으로 가득차는 가을,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간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세상에 지혜와 자비를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불교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있었기에 수많은 현대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시인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교를 전하고자 했던, 현대불교신문의 전법과 포교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며 쌓아올린 수많은 인연과 공덕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커다란 원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지난 30년간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대불교신문이 부처님의 밝은 지혜로 이 세상을 환히 밝혀주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참여와 도약으로
불교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